

#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I)\*

##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fant/ 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II)\*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이완정

교수 현온강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Wanjeong

Professor : Hyun, On Ka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the second study which was aimed to validate the Infant/ 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ITERS). The test-retest reliability, interrater reliability, and the second measure of content validity were measured in this study. The sample for the test-retest reliability included 10 infant/ toddler classes among 30 national/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s in Incheon city which had been observed in the first validation study. The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est-retest reliability was ranged from .52 to .84. In addition, two raters observed 10 family day care centers in Incheon city, where two observers independently rated each centers on the ITERS during a single visit. The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interrater reliability was ranged from .72 to .99. For the second measure of content validity, experts who were working in day care centers and who were graduate students, lecturers, or professors majoring child studies rated the appropriateness of each ITERS items for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programs for infants and toddlers, using a 1 (low) to 5 (high) scale. The mean rating was ranged from 2.52 to 4.52. In sum, when the rating scores were analyzed by the type of child care centers, national/public child care centers have better quality than private or family child care centers.

\* 본 연구는 1996년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취업 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취학전 유아 뿐 만 아니라 0세부터 2세 반까지의 영아(Infants) 및 걸음마기 아동(Toddlers)을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은 거시경제의 흐름상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황한식, 1993). 보육의 양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아동발달을 위하여 보다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보육의 질적 측면(quality of care)이라 할 수 있다. 영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유안진, 1996; 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5; Bornstein & Lamb, 1992)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기때 양질의 보육을 받는 것이 이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정부기관에 의한 법적인 제재를 통한 것으로 강제적인 규제의 성격을 띠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과 그에 관련된 규칙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하나는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전자가 보육시설의 구조적, 물리적 차원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후자는 아동의 일상적인 경험을 중시하여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보육의 질을 통제하는 이 두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아동발달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동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것은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Goelman & Pence, 1987; Phillips & Howes, 1987;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정기원·오미영·안현애(1995)는 보육시설의 면적이나, 교사대 아동비율 혹은 교사의 자격조건 등의 물리적 조건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인준체제에서 규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아동보육의 질적 측면을 전문가가 아닌 행정기구에서 규제하는 것 또한

전문성의 미비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측정할수 있고 법적인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물리적 환경 측면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령에 의해 관련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게 바람직하고, 쉽게 평가하기 힘든 보육의 질적 측면의 평가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는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한국교육개발원, 1987)', '한국 유아교육시설 기관의 표준 평가척도(이영석, 1990)', '유치원 교육 평가척도(국립교육평가원, 1994)',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이은해·이기숙, 199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로는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Criteria for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미국 NAEYC, 1981)',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Abbott-Shimm & Sibley, 1987)', '질적 향상을 위한 인준체제(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호주 NCAC, 1993)' 등이 있다. 이외에 Harms와 Clifford(1980, 1989, 1992)에 의해 개발된 일련의 도구들, 즉 '유아교육 환경 평정 척도(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 '가정탁아 평정 척도(Family Day Care Rating Scale: FDCRS)',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아동 보육 및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정 도구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구도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 혹은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일부 진행(강숙현, 1988, 1994; 임재택, 1983; 조선영, 1992) 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유아기 아동의 환경 평가 도구로 적합할 뿐 영아기나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평정 도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보육 환경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관점을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의

기준과 차별화되어 영아기 발달 단계에 맞는 기준에 의해 준비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아기 보육 상황의 질적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현은강·이완정(1997)은 Harms와 Clifford(1992)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nfants/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를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타당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연구(이하 1차 연구라 칭함)를 시행한 바 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TERS)는 생후 0세부터 30개월까지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 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정하기 위한 것으로, 7개 하위영역에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다시 10여 개의 단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은강과 이완정(1997)의 1차 타당화 연구에서는 이 평정 척도의 내용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그리고 내적 일관성법에 의한 신뢰도 및 평정자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국 NAEYC의 인준 기준과의 내용 일치 정도로 알아본 내용 타당도는 88.6%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PECP)(강숙현, 1994)' 영아편과의 병행 평가로 살펴본 공인 타당도는 .87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광역시내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30개소에 대한 시험 평가를 통해 알아본 평정자간 신뢰도는 .74로 나타났고,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추후 연구를 위해 재평가를 통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 볼 것,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이외에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 평가를 위해서도 본 평정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볼 것, 그리고 평정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아동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방법으로 보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Harms와 Clifford(1992)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TERS)'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연구로, 위의 현은강·이완정(1997)의 1차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제시한

부분을 연구문제로 하여 실행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환경 평가를 실시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일부를 재평가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시험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며, 보육시설 운영자, 교사, 아동학 관련 대학원생 이상 연구자 및 전공 교수 등 보육 전문가들에게 척도 문항의 적합성을 판정하도록 하여 내용 타당도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이용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의 환경 평가-재평가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을 평가하였을 때 평정자간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아동 보육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는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4 :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 연구자간의 내용 타당도 평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과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 평정 결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보육시설 영아반의 재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연구의 관찰 평가대상이었던 인천광역시내 30 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중 원래의 관찰 순서대로 첫 10 개 보육시설을 선정

하려고 하였다. 먼저 표집 대상이 된 각 보육시설의 운영자에게 허락을 얻어 재방문일자를 협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바뀌어 시설을 전면 개수했거나, 영아반 교실을 건물의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여 재수리한 보육시설 및 시설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아예 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보육시설 등 3 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1차 연구의 관찰 순서대로 보육시설 운영자와 연락을 하여 운영자가 재방문을 허락한 3 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 선정하여 모두 10 개소의 보육시설을 표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가정보육시설을 추가로 평가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모두 10 개소의 가정 보육시설을 유의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8개 구별로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에게 연락하여 구내 가정보육시설 중 만 30개월까지의 영아가 3명 이상 있는 보육시설들을 추천받아 보육시설 운영자가 관찰을 허락한 곳을 선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남구 6개소, 부평구 4 개소의 가정보육시설이 표집되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아동 보육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를 표집하였는데,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인천의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 및 전국의 아동학 관련(유아교육 포함) 대학원 이상 전공자 및 전공교수 등 모두 50명이었으며, 이 중 2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모든 보육시설 방문 관찰 평가에는 1차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연구진에 의해 변안, 수정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는 7개 하위 영역에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하며, 누적형 점수를 얻게 되어 있다. 즉 각 문항의 1점(부적절), 3점(최소), 5점(중

음), 7점(우수) 밑에는 총 10여개의 단문이 2 - 6개씩 배열되어 있는데, 1점이나 3점 밑에 있는 단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5점이나 7점 밑에 있는 단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단문의 수는 35개 문항에서 총 399개이다. 척도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7개 하위영역별 점수와 전체 점수 모두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 및 아동학 관련 전공자와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는 원래 척도의 35개 문항 중 각 문항의 1점(부적절)밑에 있는 단문들을 모두 제외시키고<sup>1)</sup> 나머지 단문들은 최소, 좋음, 우수 밑에 원래대로 배열하여, 각 단문들이 해당 문항 내용의 최소, 좋음, 우수 조건을 측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35개 문항내 총 316개 단문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평가되었으며, 조사도구는 문항별로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 3. 연구절차

먼저 1차 연구에서 보육 환경 평가 대상이었던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 30개소 중 본 연구의 2차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보육시설을 다시 방문하여 보육 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보육 환경 재평가는 1998년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루어졌는데, 1차 연구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던 연구진 2명이 한 시설씩 개별적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2시간 이상 관찰한 후 평정을 하였다. 1차 방문에서 얻은 선입견이 재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1차 연구때 방문한 곳을

1) 원 척도의 1점(부적절) 밑에 있는 단문을 모두 제외시킨 이유는, 대부분의 단문이 부적절 조건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또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연구진에 의해 척도가 변안,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가지 않도록 연구진내에서 재조사할 보육시설을 조정하였으며, 방문관찰 후 평정 결과를 점수 기록표에 기록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로 표집된 가정보육시설은 1차 연구에서 연구진과 짝이 되어 직접 평가작업에 참여했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명과 아동학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의 2인으로 이루어진 관찰조가 함께 방문, 관찰하였다. 방문 관찰은 1998년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실시되었는데, 1차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2명의 관찰조는 2시간 이상 관찰을 하면서 각자 준비한 평가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관찰이 끝난 후에 각자 점수 기록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2명이 함께 모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점수 기록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해당 보육시설의 최종 평가점수로 하였다.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우편 조사는 1998년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모두 50명의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 및 아동학 관련 대학원생 이상 전공자와 전공교수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경우에 따라 반송을 확인하고 미반송시 응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를 반송해준 최종 응답자는 모두 24명으로, 이들의 직업분포는 보육시설 원장 2명, 교사 8명, 아동학 관련 대학원 재학 및 강의자 4명, 전공교수 9명, 무응답 1명 등이었다.

#### 4. 자료분석

이상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와 타당도 및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등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평정자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0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재검사 평정점수를 1차 연구때 얻은 평정점수와 비교하여 7개 하위영역별로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를 알아보았다. 평정자간 신뢰도 역시 10개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명의 평정자가 각자 평정한 점수에 대해 7개 하위영역별로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를 알아보았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타당도는 문항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타당도 평가 조사도구에 의해 얻어진 적합성 판단 점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는 '보육시설 운영자(10명)'로 구분하고, 아동학 관련 대학원생 이상 전공자 및 교수들은 '보육 연구자<sup>2)</sup>(13명)'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에 평가 문항내 단문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유형을 국·공립, 민간, 그리고 가정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간에 환경 평가 점수의 7개 하위영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추후검정으로 알아보았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평정자간 신뢰도

<표 1>에서 보면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7개 하위 영역 평균 점수에 대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10개소의 검사-재검사 일치도는 .52부터 .84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 척도의 7개 하위영역 중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 '학습활동', '상호작용', '성인의 요구' 등에서의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일치도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의 구조'에서의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일치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이에 따라 전체 문항에서의 검사-재검사 점

2) 아동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중 보육시설에서 시간제로 일하거나 또한 전공 교수 중에도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그대로 보육 연구자로 분류시키고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만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분류하였다.

〈표 1〉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순위상관계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문항수)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82**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53
듣고 말하기(2)	.52
학습활동(8)	.77*
상호작용(3)	.70*
프로그램의 구조(4)	.53
성인의 요구(4)	.84**
전체 문항(35)	.63

\* p&lt;.05, \*\* p&lt;.01

〈표 2〉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 점수간의 순위상관계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하위영역(문항수)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98***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77*
듣고 말하기(2)	.92***
학습활동(8)	.99***
상호작용(3)	.91***
프로그램의 구조(4)	.72*
성인의 요구(4)	.98***
전체 문항(35)	.99***

\* p&lt;.05, \*\*\* p&lt;.001

수간의 일치도 역시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일치도가 낮게 나타난 첫째 이유는 우선 재검사의 대상이 된 보육시설이 전체 10개소로 그 수가 적기 때문인 것 같고, 둘째 이유는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재검사간의 시간 차이가 컸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여름에 실시되었던 첫 번째 검사와 달리 두 번째 검사는 겨울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바깥놀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별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에 대한 하위영역의 경우 보전관리 및 안전관리 문항 부분의 점수가 원검사와 재검사간에 다르게 평정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두 번째 검사에서는 첫 번째 검사의 관찰 대상이었던 영아반 아동들이 이미 반

년정도 더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듣고 말하기' 하위영역에서 첫 번째 검사때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한 영유아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구조' 하위영역에서도 첫 검사 때와 다른 평정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사료된다.

〈표 2〉에는 가정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 점수간의 순위상관계수가 7개 하위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점수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72부터 .99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7개 하위영역 중 특히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 '학습활동', '상호작용', 및 '성인의 요구' 등의 하위영역에서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교육 내용이 유사한

〈표 3〉 평정 척도 문항의 각 단문에 대한 보육 전문가들의 적합성 판단 점수 경향

문 항	조건	단문의 내용	적합도 평균점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 대화체 언어의 사용	최소	대화가 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사용됨 (예: '이리와', '이거 가져가', '만지지마')	2.52(1.24)	(1.00, 5.00)
24. 문화적 인식	최소	민족적 혹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형들이 갖추어짐	2.86(1.30)	(1.00, 5.00)
	-- 생략 --		-- 생략 --	
29. 일상적 활동에 대한 보호감독	최소	양육자가 항상 아동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	4.52( .79)	(2.00, 5.00)
25. 또래간의 상호작용	우수	양육자가 긍정적인 사회적작용을 지적해주고, 그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예: 아동이 나누어 갖기 차례 지키기 등에 주목하도록 도와줌)	4.52( .67)	(3.00, 5.00)
25. 또래간의 상호작용	우수	양육자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줌 (예: 자신의 장난감을 나누어줄 때 칭찬해주기)	4.52( .59)	(3.00, 5.00)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평정자들의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고, 이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 2. 아동 보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척도의 내용 타당도

보육시설 원장, 교사, 아동학 관련 대학원생, 전공 교수 등 아동 보육 전문가들에 의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문항내 단문 내용에 대한 적합도 평가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판정된 내용 적합도의 평균 점수는 2.52점 부터 4.52점까지 분포 되어 있었는데, 〈표 3〉에는 이 중 3점 미만이거나, 혹은 4.5점 이상인 단문의 내용만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해 적합도가 가장 낮게 판정된 단문은 '대화체 언어의 사용' 문항의 단문 중 최소 조건에 해당하는 '대화가 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사용됨'이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단문의 내용을 대화체 언어의 최소조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영아 보육시 대화체 언어의 사용을 위한 최소 조건은 통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언어를 사용하지 않

음이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단문의 내용이 최소 조건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적합도 판정이 낮게 내려진 또 다른 단문은 '문화적 인식' 문항의 단문 중 최소 조건에 해당하는 '민족적 혹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형들이 갖추어짐'이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보육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다른 문화나 인종의 아동과 함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평정척도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적합도가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판정된 단문은 3개 였는데, 먼저 '일상적 인 활동에 대한 보호 감독' 문항의 단문 중 최소 조건에 해당하는 '보육자가 항상 아동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이라는 단문이 적합도가 높게 판정되었다. 이는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들이 있는 보육 환경에서는 보육자가 항상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육 전문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식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 보인다. 이외에 적합도가 매우 높다고 판정된 두 단문은 모두 '또래간의 상호작용' 문항내의 단문 중 우수 조건에 해당하는 단문 이었는데, 두 단문 모두 보육자가 아동에게 긍정적

〈표 4〉 척도 문항의 단문 내용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 연구자의 적합성 판단 차이

문항	조건	단문의 내용	평균순위		Corrected Z값
			보육시설 운영자 (N = 10)	보육 연구자 (N = 13)	
1. 규칙적인 양육활동	좋음	영아를 개인적으로 돌보기에 적절한 가구가 있음(예 : 개인용 의자 등)	7.00	15.88	-3.19**
2. 학습활동을 위한 가구 설비의 사용	최소	학습활동을 위한 기본 가구들이 충분하고 수선상태가 양호함	7.70	15.31	-2.80**
3. 휴식과 안락함을 위한 가구설비	좋음	특정의 포근한 영역이 항상 준비되어 있음(예: 양탄자, 쿠션, 쿠션이 있는 가구)	7.90	15.15	-2.77**
3. 휴식과 안락함을 위한 가구설비	우수함	포근한 영역이 독서, 노래부르기 혹은 다른 조용한 놀이를 위해 사용됨	15.15	7.90	2.69**
13. 안전관리	최소	비상시 사용할 전화와 수송기구가 있음	8.00	15.08	-2.69**
28.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일정	최소	기본적인 반복활동을 위한 일정이 느긋하고 개별화되어 있어 각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킴(예: 영아는 개인일정에 맞추어, 걸음마기 아동은 집단일정에 쉽게 맞출 수 있도록)	15.08	8.00	2.68**

\*\*p&lt;.01

참고) 제시된 수치는 평균순위(Mean Rank)이므로 적합도 판정 점수가 높을 경우 순위 점수는 낮게 된다.

인 상호작용을 지적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내용이 었다. 걷기 시작하는 걸음마기 아동의 경우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이 발달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경우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못하면 쉽게 상대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퀴는 등의 공격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 전문가들은, 동일 연령대의 걸음마기 아동들이 함께 모여 있는 보육 상황에서 보육자가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줄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우수한 환경 조건일 것이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문항내 각 단문들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해준 보육 전문가를 보육 현장에 있는 사람(보육 시설 원장 및 교사)과 보육 연구자(아동학 관련 대학원생 및 전공교수)로 구분하여 이들의 적합성 판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표 4〉에는 두 집단간의 통계치 차이가 P<.01 이하에서 유의한 단문만 제시하였는데, 보육 시설 운영자가 보육 연구자보다 적합도를 높게 판

정한 단문이 4개 였고, 그 반대인 경우의 단문이 2개 였다.

먼저 '규칙적인 양육활동' 문항의 좋음 조건에 해당하는 단문인 '영아를 개인적으로 돌보기에 적절한 가구가 있음'은 보육 연구자 보다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그 적합성을 높게 판정했는데, 이는 현재 집단용 가구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양육 환경에서 개인용 가구를 갖춘다는 것은 그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현실을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 시설에서는 '활동을 위한 기본 가구들'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포근한 영역'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보다는 낮잠시간에 준비되는 경향이 크다.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보육 연구자들보다 이 두가지 조건들이 '학습활동을 위한 가구설비의 사용' 문항의 최소 조건을 살펴보는 문항으로서, 그리고 '휴식과 안락함을 위한 가구설비' 문항의 좋음 조건을 살펴보는 문항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높았다.

'포근한 영역이 독서, 노래부르기 등의 조용한 놀



이를 위해 사용' 되는 것은 그 설치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보육 연구자보다 이 단문이 '휴식과 안락함을 위한 가구 설비' 문항의 우수함 조건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더 낮게 판단했는데, 이는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경우 실제 보육 현장에서 포근한 영역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실제로 조용한 놀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보인다.

보육 연구자들은 보육시설 운영자보다 '비상시 사용할 전화와 수송기구가 있음'이 '안전관리' 문항의 최소 조건을 살펴보는 문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표 4>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육 연구자들의 경우 '안전관리'의 최소 조건으로서 이 단문보다는 다른 단문, 가령 '뜨거운 물이 안전하게 관리됨', '언제나 자동차 안전 잠금장치가 사용됨' 등에 더 높은 적합도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활동

<표 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 환경 하위영역의 점수 비교

하위 영역 (문항수)	시설 유형	어린이집 수	평균(표준편차) scheffe	F값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5)	국공립	10	4.09 (1.20)	1.12
	민간	20	3.87 (.93)	
	가정	10	3.48 (.84)	
	전체	40	3.83 (.93)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9)	국공립	10	3.19 (.69) a	11.34***
	민간	20	2.65 (.81) a	
	가정	10	1.76 (.28) b	
	전체	40	2.56 (.85)	
듣고 말하기(2)	국공립	10	4.23 (1.58)	2.19
	민간	20	3.30 (.89)	
	가정	10	3.43 (1.20)	
	전체	40	3.56 (1.20)	
학습활동(8)	국공립	10	4.29 (1.11) a	8.30**
	민간	20	2.83 (.95) b	
	가정	10	2.81 (.90) b	
	전체	40	3.19 (1.15)	
상호작용(3)	국공립	10	5.00 (.79) a	7.90**
	민간	20	4.28 (.84) a	
	가정	10	3.23 (1.42) b	
	전체	40	4.20 (1.17)	
프로그램의 구조(4)	국공립	10	4.68 (1.07) a	4.52*
	민간	20	4.07 (1.01) ab	
	가정	10	3.26 (1.18) b	
	전체	40	4.02 (1.16)	
성인의 요구(4)	국공립	10	4.68 (1.04) a	11.63***
	민간	20	3.24 (1.00) b	
	가정	10	2.54 (1.03) b	
	전체	40	3.42 (1.27)	
전체 문항(35)	국공립	10	4.10 (.79) a	10.29***
	민간	20	3.26 (.63) b	
	가정	10	2.71 (.72) b	
	전체	40	3.33 (.84)	

\*p<.05, \*\*p<.01, \*\*\*p<.001

에 대한 일정' 문항의 최소 조건에 해당하는 '일정이 개별화되어 있어 각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킴'이라는 단문에 대하여 보육 연구자들은 보육시설 운영자 보다 그 적합성을 높게 판정하였다. 이는 보육 연구자들이 각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가 충족되는 것이 일상 생활에서의 최소 조건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 모든 아동의 요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3. 보육시설 유형별 평정 결과의 비교

〈표 5〉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보육 환경 평가 점수의 집단별 차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에 대한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는 가정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F_{값} = 11.34, p < .001$ )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와 유아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보육자가 이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와 연관지어 보육자와 아동간의, 아동과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도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의 점수보다 가정 보육시설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F_{값} = 7.90, p < .01$ )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평가 점수에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수가 가정 보육시설의 점수보다 높게( $F_{값} = 4.52, p < .05$ )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구조' 하위영역이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일정이나 일상적인 보호감독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 교사가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따라서 교사 -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며, 일상적인 보호 감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는 국·공립 보육시

설의 점수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F_{값} = 8.30, p < .01$ ), 또한 전문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성인 모임 장소 등 성인 보육자의 개인적인 요구가 잘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성인의 요구'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의 점수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F_{값} = 11.63, p < .001$ )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교재, 교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체 평가 점수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의 전체 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F_{값} = 10.29, p < .001$ ) 나타났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특히 학습활동이나 프로그램의 구조 측면 및 성인 보육자의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보다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은 전체 보육 환경의 질이 보육교사의 학력 및 복지 수준과 학습활동에 사용될 교구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적합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ITERS)의 타당화를 위한 2차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연구에서 관찰 평가가 이루어졌던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30개소 중 10개소에 대해 재관찰 평가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로 알아보았는데, 두 검사 점수간 일치도는 .52에서 .84로 일치도가 낮은 하위 영역들이 있었으며 이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일치도 점수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먼저 재검사가 원 검사보다 6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져 영아반 아동들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원 검사는 여름에 이루어져 바깥놀이가 많았던 때이고 재검사시에는 겨울이어서 실내놀이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비교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 나 '학습활동' 및 '성인의 요구' 등에서는 검사-재검사 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위와 같은 조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 및 일상적인 활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구조' 등의 하위영역에서의 검사-재검사 간 일치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원 검사때는 연구진이 보육시설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운영자나 보육자들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태도를 보였으나, 재검사때는 연구진과 안면이 익어 평상시와 그대로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점도 있어 이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육 환경에 대한 관찰 평가를 할 때는 1, 2개월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관찰 평가 점수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역시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로 알아 보았는데, 7개 하위영역에서 대부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점수에서도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환경 구성이 비교적 유사하고 교재, 교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 보다는 보육 활동에 필요한 설비 위주로 꾸며져 있으며, 대개 집단이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 충족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평정 점수가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럴 경우 평정자간 일치도는 높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영아/결혼마기 아동 평정 척도는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환경 평정에도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이 평정 척도를 사용할 경우 일관되게 낮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여러 가정 보육 시설의 집단내 변량은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을 평정할 경우에는 Harms와 Clifford(1989)에 의해 개발된 가정 보육 평정 척도(Family Day Care Rating Scale: FDCRS)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영아/결혼마기 아동의 환경 평정 척도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보육 전문가들에 의한 5점 리커트 척도의 적합도로 알아보았는데, 보육 전문가들에 의한 적합도의 평균 점수는 2.52점부터 4.52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보육 전문가들이 적합도를 낮게 평가한 첫 번째 단문은 '대화체 언어의 사용' 문항 중 최소 조건에 해당되는 '대화가 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사용됨' 이었는데, 이는 보육 전문가들이 통제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소 조건에도 해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보육 현장에서 통제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요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적 인식' 문항 중 '다양한 인종의 인형을 구비할 것' 이 최소 조건에 있었는데, 이 단문 역시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그 적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보육대상 아동의 구성이 민족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단문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인식' 문항내에 이러한 단문 대신에 아동들이 다양한 계층이나 도시, 농촌간의 문화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교구 및 교재를 갖추거나 이를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단문을 넣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보육 전문가를 보육시설 운영자(원장 및 교사 포함)와 보육 연구자(대학원생 이상 및 전공교수)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에 평정 문항내 단문에 대한 적합도 점수가 다른지를 맨휘트니 검증(Mann-Whitney)으로 알아보았다.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보육 연구자들 보다 적합성 점수를 더 많이 준 단문은 학습활동을 위한 기본 가구들이 충분하고 수선이 양호한지를 묻는 것, 비상시 사용할 전화나 수송기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 등이 보육 환경의 '최소' 조건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외에 개인용 의자등의 가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 보육 환경의 ' 좋음' 조건에 적합한지, 포근한 영역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등이 보육 환경의 '우수함' 조건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보육 연

구자들이 보육시설 운영자 보다 적합성 점수를 더 많이 준 단문은 포근한 영역이 조용한 놀이를 위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 보육 환경의 '우수함' 조건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에 대한 것과, 기본적인 활동의 일정이 개별화되어 있어 각 아동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지를 보는 것이 보육 환경의 '최소' 조건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위한 개인용 가구보다는 집단적으로 이용할 탁자 등이 사용되고 있고 포근한 영역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많아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이를 충족시킬 경우 환경이 ' 좋음'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보육 연구자들은 이를 보다 기본적인 '최소'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 연구자들은 포근한 영역이 조용한 놀이를 위해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환경의 '우수함'을 측정할 조건이라 인식하는데 비해,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책읽기 등의 조용한 놀이가 실제로는 교사에 의해 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문의 내용이 환경의 '우수함'을 측정하는데는 덜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 연구자들이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 충족을 보육 환경의 최소 조건으로 보는 반면,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이것은 최소 조건이기 보다는 우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평정 척도의 7개 하위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일원변량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7개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과 '성인의 요구' 하위영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수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 활동'과 '상호작용' 하위영역에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가 가정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구조' 하위영역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가 가정 보육시

설의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평가 점수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수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의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반에도 학습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가 준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훈련을 잘 받은 교사들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개별 아동을 위한 규칙적인 양육 활동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질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자와 아동간,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보육환경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Howes 등, 1992; Howes & Rubenstein, 1985)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이를 토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부족한 학습활동을 위한 교재, 교구를 보충하고 학력 및 경력 수준이 높은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보육의 전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을 위한 가구의 설비 및 배치'나 '듣고 말하기'의 하위영역 외에는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 보다 평정 결과가 낮는데 이는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 설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내용성있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갖출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낮았다. 그러므로 이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환경을 평정할 경우에는 일부 보육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일치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검사 시에는 본 연구와 달리 검사-재검사 간의 시간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영아/걸음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을 평가한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평

정 척도를 사용하여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환경을 평가할 경우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평정 점수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단내 변량을 충분히 크게 얻기 위해서는 가정 보육시설 환경 평정 척도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평정 척도의 각 문항내 단문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보육 전문가들에 의해 비교적 그 적합도가 높다고 판정되었으나, 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 연구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단문들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본 평정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 단문들의 내용을 제외시키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결혼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이거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혹은 영아가 최소 3명 이상 있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가대상이 된 보육시설의 수가 총 40개소로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것이라, 본 연구의 결과를 그 외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평정 척도의 내용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들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나, 적합성 평가 설문지에 제시된 척도 문항내 단문의 수가 316개로 너무 많아 응답자들이 세심하게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 결과 또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영아 및 결혼마기 아동의 보육 환경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가도구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 참고문헌

- 1) 강숙현 (1988).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숙현 (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서울:동문사
- 3) 국립교육평가원 (1994). 유치원 교육 평가연구.
- 4) 유안진 (1996). 인간발달신강. 서울:교문사.
- 5) 이영석 (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과 표준평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29(2), 169-221.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 6) 이은혜·이기숙 (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 척도. 서울: 창지사.
- 7) 임재택 (1983). 유아교육환경 평정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부산대 사범대학 교육논집, 10, 107-143.
- 8)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보육시설 평가 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5). 인간발달: 발달 심리적 접근. 서울:교문사.
- 10) 조선영 (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 12) 한국교육개발원 (1987).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개발연구.
- 13) 황한식 (199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영유아보육서비스 확충문제. 「21세기의 영유아보육」(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엮음). 서울: 한울.
- 14) 현은강·이완정 (1997). 영아/결혼마기 아동 환경 평정 척도 타당화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5(6), 235-248.
- 15) Abbott-Shim, M. & Sibley, A. (1987). Asse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Inc.
- 16) Bornstein, M. H. & Lamb, M. E. (1992). Development in infancy. NY: McGraw-Hill, Inc.
- 17) Goelman, H. & Pence, A. R. (1987). Effects of child care,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Victoria day care research project.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 us?(pp.89-104).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18)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19)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 (1980).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20)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 (1989). *Family Day Care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21) Harms, T., Cryer, D., & Clifford, R. M. (1992). *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22) Howes, C. & Rubenstein, J. L. (1985). Determinants of toddlers' experience in day care: Age of entry and quality of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14(2), 140-151.
- 23) NAEYC. (1991).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s*. NY: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24) NCAC(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1993).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handbook*. Sydney: Commonwealth of Australia.
- 25) Phillips, D. A.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1-2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